

삼성전자 휴대폰, 러시아 판매 1천만대 돌파

삼성 휴대폰이 러시아에서 누적 판매 1천만대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만 러시아에서 약 180만대 휴대폰을 판매, 러시아 시장 진출 7년 만에 누적 1천만대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휴대폰을 1천만대 이상 판매한 곳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뿐이다.

1천만대 돌파는 삼성 휴대폰이 지난 4월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선정된 것과 함께 러시아 최고의 '명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삼성 휴대폰은 뛰어난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며, "이를 위

해 고객의 니즈(Needs)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삼성 휴대폰은 러시아에서 560만대가 판매돼 시장점유율 23.1%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 모토로라는 550만대로 22.7%, 3위 노키아는 450만대로 18.6%를 기록하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러시아에서 약 650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판매해 명품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누적 2천만대까지도 넘어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IT 오피니언 리더 「자이제니아」출범	2005.05.09
2	삼성전자,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 마케팅...	2005.05.06
3	삼성전자, 패션 '벤티존슨 폰'美 출시	2005.05.04
4	삼성전자, 노벨박물관 공식 후원!	2005.05.04
5	세계 유력 언론, 삼성휴대폰 격찬	2005.05.02
6	삼성전자, 미니컴포넌트 웹캠PC 판매 불티	2005.05.02
7	삼성전자, 눈 속에 핀 애니콜 신화	2005.04.29
8	삼성전자 첨단 디지털 연구단지에 글로벌...	2005.04.29
9	삼성전자 황창규사장 미 전자산업협회 기술...	2005.04.28
10	삼성전자, 포토 프린터 시장 본격 공략	2005.04.27
11	삼성전자, 유럽 명문구단 첼시(Chelsea) 후원!	2005.04.27
12	삼성전자, LCD TV 날개를 달다	2005.04.26

LG전자, 무선 홈씨어터 시장 선도한다

LG전자가 프리미엄급 무선 홈씨어터 신제품을 선보이며 무선 홈씨어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LG전자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무선 홈씨어터를 출시, 지난해 전체 홈씨어터 판매중 무선 홈씨어터가 25%를 차지한 데 이어, 일반 홈씨어터에 비해 선 연결이 간편하면서도 생생한 음질을 구현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에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LG전자는 디지털 영상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무선 콤비 홈씨어터 2005년 신제품(모델명 : XH-CW759TA)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홈씨어터의 핵심기술인 원음에 가까운 음향 구현을 위해 자체 개발한 'XTS (eXcellent True Sound) Pro'를 적용해, CD/DVD 등

미디어에 저장된 음원을 5개 스피커에 각각 최적화된 신호로 전달, 스피커에서 출력할 때 발생하는 신호 왜곡현상을 방지해 원음에 가까운 음향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지난해 3개 모델을 추가 출시해 무선 홈씨어터가 전체 홈씨어터 판매 비중이 25%에 이르며, 무선 홈씨어터 시장의 선두를 지켰던 데 이어, 올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무선 홈씨어터 시장에서 지속적인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통해 무선 홈씨어터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고수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 'WTCC' 공식..	2005.05.03
2	LG전자 김병수 부회장, "원스톱 서비스 가능..	2005.05.02
3	"한강유람선 타고 데이트해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2005.05.02
4	CDMA 휴대폰 분야 IPv6 인증 세계 최초 획득	2005.04.29
5	LG전자 김병수 부회장, "당당한 자신감으로 '글로벌..	2005.04.28
6	'어머니폰의 끝없는 진화' 종합 헬스케어 기능..	2005.04.28
7	LG전자, PDP LCD TV, 세탁기 등 7개 품목 'No.1...	2005.04.25
8	LG전자, 터키서 민간 경제외교 성과 '활짝'	2005.04.22
9	LG전자, 1분기 매출 5조 9,585억원 달성	2005.04.20
10	윤상한 부사장, 캠퍼스에 '디지털 혁신' 전파	2005.04.19
11	루브르 박물관의 名作, LG전자 디지털TV	2005.04.19
12	LG전자, 디지털 가전 2007년 글로벌 Top1 달성	2005.04.18

삼보 노트북, '가격 대비 성능' 최우수



디씨인사이드 네티즌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노트북으로 삼보컴퓨터를 뽑았다.

디씨인사이드는 "4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노트북 브랜드는?'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TG삼보'가 1위에 올랐다"고 4일 발표하였다.

삼보컴퓨터를 선택한 사람들은 설문문에 참여한 2천697명의 네티즌 중 29.6%인 799명이었다. 디씨인사이드는 "지난 해 말 에버라텍 시리즈 출시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2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IBM으로 전체의 25.9%인 698명이 선택하였다. 디씨인사이드의 이성호씨는 "IBM은 가격이나 디자인면에서 노트북의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충격방지나 누수방지 기능 등 특유의 성능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위는 11.5%의 지지를 받은 델이 차지했으며, 그 뒤를 HP 컴팩(6.5%), 삼성전자(6.4%), LG전자(5.7%), 도시바(4%)가 차례로 이었다.

삼성전기, 미 조지아 공대와 기술 협력

삼성전기는 유비쿼터스, 초 광대역 통신(UWB) 등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문 조지아 공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지난 5월 3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조지아 공대의 우수 기술과 인력을 활용, 차세대 무선 이동통신용 핵심 칩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정립해 기술선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지아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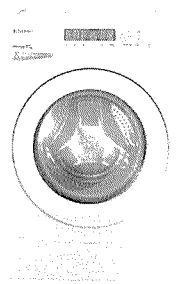
삼성-조지아 고주파 연구센터(SG-RF Design Center)로 이름 붙여진 연구센터는 조지아 공대 과학기술 캠퍼스의 전자 연구소(GEDC : Georgia Electronic Design Center)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지아 공대 교수진과 석,박사 인력과 삼성전기에서 파견된 연구인력이 공동으로 차세대 무선 고주파 관련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삼성전기는 우선 초 광대역, 초 저전력, 지능형 무선통신기술을 확보, 차세대 이동 통신용 핵심 칩을 개발해 시스템 모듈화로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단순 부품, 단일모듈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 핵심 칩을 자체 생산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모듈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갈다는 전략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빌트인 가전 공략 '고삐' 죄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내년까지 빌트인 라인업을 보강, 건설사와 협력을 통한 빌트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유럽 수출 모델인 빌트인 드럼세탁기 '클라쎈 (모델명 DWD-900WCB·사진)' 출시를 계기로 빌트인 가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내년까지 프리미엄급 빌트인 가전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을 보강하고, 대우건설등 여러 건설사 등과 모델하우스를 이용한 공동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반찬냉장고와 빌트인 전자레인지 등 현재 빌트인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빌트인 가전 사업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드럼세탁기를 출시했으며 내년까지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출시된 '클라쎈'은 빌트인 드럼세탁기로는 최대 용량인 9kg급. 외관 크기는 7kg 제품과 동일하지만 내부 세탁통 크기를 키워 빌트인이 손쉽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나노실버 드럼을 채용, 세균증식을 억제하고 살균효과를 높여 민감한 아기 옷 세탁에 탁월하다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설명하였다.

이 제품은 300mm 대형 도어를 채용해 세탁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이 편리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크롬재질 대신 친환경소재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구김 방지 기능을 채용해 세탁 종료 후 15분에 한 번씩 10초간 드럼을 회전하도록 설정됐고 땀복이나 수건 등 더러움이 덜한 의류는 '급속 웰빙 코스'를 이용해 30분 내에 전체 세탁과 탈수과정을 마칠 수 있다.

시아 및 브라질 등 5개국에 현지 법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내 토종 업체로는 업계 최초로 수출 1,2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1,100억원 매출 목표 중, 약 40%에 해당하는 430억원을 수출 목표로 설정하였다.

올초에 설립된 브라질 현지 법인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또한 연내에 베트남 및 인도에 현지 법인 설립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신공장을 건설중이다.

레이저 사업 및 스테핑 모터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 전략과, 대리점에 대한 기술, 영업 지원을 통한 유통 선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장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주) 오토닉스는, [Win-Win Partnership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년도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중장기 경영 전략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공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광전자, 기술대학 입학식 거행

광전자(AUK)는 지난 4월5일 제5기 기술대학 교육생을 외부에서 모집 공고하여 입학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총 입학생수는 20명으로 FAB 설비 운용에 관한 집중 교육을 통해 AUK 기술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외부 모집 공고로 사내대학에 입학시키고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는 광전자로서도 처음으로 갖는 프로젝트이다.

1기에서 4기까지 AUK 기술대학을 운영 할때에는 외부에서 모집을 한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운영을 해왔었다.

특히 금번 AUK 기술대학 과정은 광전자 사내 최초로 Fab 공정 설비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광전자로서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 5기 AUK 기술대학 과정으로 익산직업훈련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S-두산-삼양 주물사업 합작

LS와 삼양, 두산 등 국내 중견 그룹이 손잡고 주물사업 합작 법인을 신설해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전선, 삼양중기, 두산엔진 등 3사는 주조 관련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5월말 합작법인을 출범한다는 조인식을 5월 19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LS전선은 경기 군포에서 사출성형기와 각종 산업기계 주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삼양중기는 경기 부천에서 선박용엔진 주물을 만들어 지난해 170억원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번 3사 공동법인 설립은 LS 전선과 삼양중기의 경우 사업경쟁력 강화와 국내외의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두산엔진(옛 HSD엔진)은 선박용엔진 관련 주물 제품의 안정적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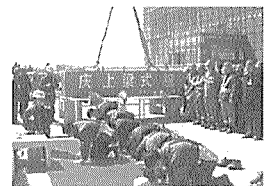
이 합작법인에는 LS전선 50%, 삼양중기 33.8%, 그리고 두산엔진이 16.2%의 지분참여를 하게 되며 초기 자본금은 140억원(280만주 발행)이다.

합작법인은 선박용엔진, 사출성형기, 각종 산업기계류에 사용되는 주물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올해는 LS전선의 군포공장과 삼양중기의 부천공장을 임대 해 운영기로 했으며 4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190억원을 투입해 전북 전주에 1만 6,000 t 규모의 신규공장을 올 5월 착 공해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 조선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2008년 가동을 목표로 다련(大蓮)에 1만 3,000 t 규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LG이노텍 연태법인, 신축공장 상량식 마무리

연태법인은 지난 3월 17일, 연태법인 신축공장 동 건물 상량



식을 실시하였다. 연태법인 신축공장은 연면적 6,910평, 2층 규모 건물공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옥상 콘크리트 타설의 마지막 공정한 상량식을 마무리하여 건축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금년 5월 중순에 CELL, LCM 등의 설비 반입이 이루어지면 7월 초부터는 신공장에서 LCM 등 4개 제품이 순차적으로 양산 개시될 예정이다. 연태법인은 올해 말까지 공장동 1층에 CELL 후공정 2백만대, 2층에 LCM 2 Line 50만대, Camera Module 2 Line 50만대, Folder 2 Line 3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